**남쪽 섬의 동화 같은 진짜 이야기**

매릴린과 시로의 사랑 이야기는 1988년에 개봉한 영화 ‘매릴린을 만나고 싶어’로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아카지마 섬의 민박에서 기르는 시로는 자마미지마 섬에 있는 암컷 개 매릴린을 만나기 위해 아카지마 섬의 니시바마 해변에서 바다를 3km나 헤엄쳐 자마미지마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매릴린의 곁으로 가기 위해 헤엄치고 계속 달린 시로의 씩씩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실제 시로가 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매릴린은 촬영 전인 1987년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 매릴린상은 아카지마 섬의 항구에 있는 시로의 상과 마주보고 있습니다.